

# 보건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 응급구조과 및 전남대학교 간호과학 연구소-

김미선\*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학술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효율적인 이용은 학자나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론 관련 학문분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몇 년사이 정보매체와 처리기술, 통신 및 정보전달기술 등의 변화된 정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보이용자 집단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최은주, 1996).

정보이용자 집단중에서도 특히 보건분야 연구자들은 복잡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다. 정보요구란 하나의 정보시스템에 제기할 수 있는 실제 질문이나 예상되는 질문으로(사공철 등 편, 1996) 항상 어느 장소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정보요구에 대한 인지적, 사회적 많은 연구접근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정보이용자는 이러한 정보요구를 인식한 다음에 자신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개념을 정보이용행태라고 할 수 있다(김혜양, 1996).

보건분야 종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한

\* 본 논문은 1999년 광주보건대학 학내 연구지원비에 의한 연구과임

\*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과 ·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Curtis(1993)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상자 대부분이 자료조사를 서지도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지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데이터베이스는 전자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개발되어지고 있는 자료로서 그 이용도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정보이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메카니즘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방법은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설계와 정보서비스를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정보현장에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 연구내용이 될 수 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도서관 및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관심과 그에 따른 정보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정보이용자에게 알맞는 이상적인 정보서비스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건분야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분야 연구자중 전체 보건의료진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전문직(조인숙, 1997) 중에서도 간호학 교수집단의 정보이용행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용자요구에 맞는 보건분야 정보시스템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분야 연구자들이 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현실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이 정보이용행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이용자요구에 맞는 보건분야 정보시스템 설계의 기초자료와 원활한 정보유통, 이용자의 정보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연구, 교육, 임상, 행정에 응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표본 연구자집단은 보건분야 세부 학문영역의 연구자들을 고르게 대표하지 못하고 응급구조과 및 간호학 영역에만 편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보건분야 전체 연구자집단의 정보이용행태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 II. 문헌고찰

보건분야는 정보의 양이 아주 방대하고 신속하게 변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타분야 못지 않게 속보성, 최신성 및 다양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김미선, 1998; Yamamoto 외 2인, 1998).

연구자들의 가열되는 연구활동과 이에 따른 정보량의 증가로 최신정보의 활용은 진행중인 연구를 보다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며 이미 성취된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고, 미래 연구계획의 방향설정에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최신자료에 대한 요구는 편집과 출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행본보다는 연속간행물이나 연구보고서의 이용율이 높고, 재래식 색인이나 초록지를 속도에서 능가하는 각종 연속간행물 목차서비스나 최신정보의 선택적 제공(SDI)과 같은 정보서비스의 개발을 자극시키고 있다. 한편 정

보의 빠른 노화현상으로 출판후 오랜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용도가 낮아져(봉선화, 1992) 신속한 정보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건의료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에서 학회, 전문잡지 혹은 전문서적을 통해 동료들과 의견교환을 하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변하는 의료환경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동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다음 학회가 개최될 때까지 혹은 전문잡지의 다음호 혹은 새로운 전문서적이 출판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필요하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료들과 적시에 질문을 주고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능력은 보건의료전문직이 전문직으로서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능력이다(박현애, 조인숙, 김정은, 1998).

국내 인터넷의 시작과 발전과정은 1982년 서울대학교와 전자통신연구소의 전신인 KIET간의 TCP/IP 사용에 의한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후 1983년 미국과의 UUCP(Unix-to-Unix Copy Program)를 이용한 다이얼 업 연결이 이루어졌고 1984년에는 X.25회선을 통해 UUCP를 이용하여 유럽과의 연결이 성립되었다. 1987년부터 교육망과 연구망을 통한 교육연구망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1990년 HANA/SDN이 전용선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시작되었다. 현재의 국내 접속망은 미국에 256Kbps의 전용선으로 연결된 하나망(HANA)과 연구망(Kreonet)이 있고 일본과 56Kbps로 연결된 교육전산망(KREN)이 있다.

그리고 한국통신에서 1994년 6월부터 상용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데이콤도 1994년 10월부터 시작하였다. 현재는 데이콤, 아이네트, 나우콤, 유니텔 등의 여러 회사에서 사용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여(박현천, 1996; 박현애, 조인숙, 김정은, 1998), 1999년 10월 말 현재 한국인의

37.9%가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고 한국인구의 13.4%수준인 6백 30만명이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이는 1993년 국내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지 5년만에 1998년 말 3백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2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무료 인터넷 서비스의 증가와 초저가 인터넷 PC판매 등으로 2000년 상반기에는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그 수는 급격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조선일보 월간조선, 2000).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의 창구로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통신망의 확장 및 보건의료연구기관에서의 다양한 정보베이스 제공으로 그 효용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의료연구에 있어서 인터넷은 보건의료진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정보를 검색하고 습득할 수 있는 방법 및 보건의료진이 원하는 연구 목적에 맞게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각 연구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의학도서관 및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보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창구 및 가상도서관, 의학 및 건강관련 정보, 그리고 각종 저널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최교환 등, 1996). 이렇게 정보는 보건분야 연구자, 교육자, 더 나아가서는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연구에 근거한 간호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박현애, 1996).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대학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망으로 인터넷 이용에 있어 기회가 비교적 많이 열린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 6개교와 3년제 대학 10개교 응급구조과 및 간호학 교수 총 1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최은주(1996)와 김혜양(1996)의 정보이용행태 설문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였다.

##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배포 및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116부중 75부가 회수되어 62%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중 조교가 응답한 설문지 1부, 점입교수가 응답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72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단일변수에 대해서는 빈도, 백분율 등을 사용하여 분포를 살펴보았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표본조사 대상자 116명 가운데에서 질문지에 응답해 준 72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층은 40대가 5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구경력이 16년 이상인 사람이 33.3%였으며, 최종학위는 박사과정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이 45.8%, 직위는 전임강사가 30.6%로 가장 많았다.

〈표 1〉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구분	수(명)	백분율(%)
연 령	30대	28	38.9
	40대	39	54.2
	50대	5	6.9
연구경력	1-5년 이하	23	31.9
	6-10년 이하	10	13.9
	11-15년 이하	15	20.8
	16년 이상	24	33.3
최종학위	석사	22	30.6
	박사과정 또는 수료	33	45.8
	박사 이상	17	23.6
직 위	전임강사	22	30.6
	조교수	15	20.8
	부교수	21	29.2
	교수	14	19.4
전 체		72	100.0

p<.05), 학위가 높을수록 연구실적이 비교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 2. 정보이용

### 2-1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응답자들의 최근 3년간의 연구저서 및 논문 등의 연구실적은 5건 이내가 53명(79.1%)으로 가장 많았고, 6-10건이 11명(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나 연구경력, 직위에 따른 연구실적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종학위에 따른 연구실적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chi^2=16.59$

### 2-2 이용자료의 유형

응답자들이 평소애 이용하는 인쇄자료, 비인쇄 자료 그리고 기타 정보원들의 이용정도에서는 인쇄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추세였고, 다음으로 기타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는 김혜양(1996)과 Curtis(1993)의 연구결과와 같은 경우로 이용자들이 문헌에 접근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표 2〉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5건 이내	6-10건	11건 이상	전체	유의도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53 : 79.1	11 : 14.4	3 : 4.5	67 : 100.0	
학 위 별	석사	18 : 94.7	1 : 5.3	- : -	19 : 100.0	df=6 $X^2=16.59$ p <.05
	박사과정	27 : 84.4	5 : 15.6	- : -	32 : 100.0	
	박사이상	8 : 50.0	5 : 31.3	3 : 18.8	16 : 100.0	

〈표 3〉 이용자료의 유형

순위	인쇄자료 (6.4)	비인쇄자료 (3.4)	기타 정보 (5.4)
1	학위논문 (8.0)	외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4.5)	학술회의 (6.6)
2	정기간행물 (7.8)	오디오/비디오 자료 (4.1)	외부 동일전공 동료 (5.7)
3	연구보고서 (7.6)	CD-ROM (3.9)	외부전문가 (5.6)
4	도서(단행본) (7.1)	데이터베이스(소속기관) (3.4)	내부동료(소속기관) (5.1)
5	신문 (5.1)	마이크로 형태자료 (1.3)	라디오/TV (4.1)
6	회의자료 (4.8)		
7	정부간행물 (4.4)		

( )안은 평균(m)

되었다고 해도 전통적인 형태의 자료는 계속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유재환(1996)의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평균적으로 ON-LINE 데이터베이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으나 OFF-LIN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인쇄매체의 경우 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인쇄매체의 중요성을 아직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점차로 책자 형태가 아닌 CD-ROM이나 온라인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구축에 대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마도 정보이용자료의 유형은 인터넷의 영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비인쇄자료 등과 같은 형태로 전자화 되어지리라 생각된다.

먼저 인쇄자료의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학위논문(M=8.0), 정기간행물(M=7.8), 연구보고서(M=7.6), 도서(M=7.1) 순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직위에 따라 정부간행물을 이용하는데 차이가 있었는데(F=3.51, P<.05), 직위가 낮을수록 정부간행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쇄자료를 살펴보면 외부 온라인 데이터베

이스(M=4.5), 오디오/비디오 자료(M=4.1), CD-ROM(M=3.9) 순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기타 정보로는 학술회의(M=6.6), 외부 동일전공 동료(M=5.7), 외부전문가(M=5.6), 내부동료(M=5.1) 순이었다. 연령에 따라 소속기관의 내부동료에게 정보를 얻는 정도의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내부동료에게 정보를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F=3.27, P<.05).

#### 2-3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의 최신성

이용하고 있는 자료의 최신성에 대한 정도는 2-5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51명(70.8%)으로 가장 높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2년에서 5년 사이에 출판된 자료를 이용하고 있었다<표 4>. 이는 1-5년 사이에 출판된 단행본이나 학술잡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는 봉선화(1992)의 연구결과와 같다.

#### 2-4 연구과제당 참고자료

연구에 참고하는 자료의 수는 과제당 30-50종 미만이 30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10-30종 미만이 33.3%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학위별로 참

〈표 4〉 이용자료의 최신성

	1년 이내	2-5년	5-10년	전체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2 : 2.8	51 : 70.8	19 : 26.4	72 : 100.0

〈표 5〉 연구과제당 참고자료의 수

		10종 이하	11-30종 미만	30-50종 미만	50종 이상	전체	유의도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9 : 12.5	24 : 33.3	30 : 41.7	9 : 12.5	72 : 100.0	
학 위 별	석사	3 : 13.6	12 : 54.5	4 : 18.2	3 : 13.6	22 : 100.0	df=6
	박사과정	4 : 12.1	10 : 30.3	14 : 42.4	5 : 15.2	33 : 100.0	X <sup>2</sup> =12.60
	박사이상	2 : 11.8	2 : 11.8	12 : 70.6	1 : 5.9	17 : 100.0	p=0.05

〈표 6〉 연구착수단계에서의 참고정보원

		2 차 자료	외부 전문가	선임 연구자	도서 관 목록	도서 관 서가	사 서 와 상 담	참 고 문 헌	본 인 소 장 자 료	온 라 인 검 색	출 판 사 목 록	전 체
수(명)	N	52	6	5	4	8	1	69	26	43	2	216*
백분율	%	18.1	2.1	1.7	1.4	2.8	0.3	24.0	9.0	14.9	0.7	100.0

\* 는 우선순위 1, 2, 3으로 복수표기에 따른 결과임

〈표 7〉 외부정보원

		타 대학 도서관	공공 도서관	국내 연구기관 전문도서관	동료 연구자 및 학자	상업적 정보 서비스 기관	외국 도서관	학술 회의	기타	전체
수(명)	N	55	19	48	24	19	11	37	3	216*
백분율	%	19.1	6.6	16.7	8.3	6.6	3.8	12.8	1.0	100.0

\* 는 우선순위 1, 2, 3으로 복수표기에 따른 결과임

고하는 자료의 수가 차이가 있었는데( $\chi^2=12.60$ ,  $p<.05$ ), 학위가 높을수록 참고하는 자료의 수가 많았다. 대부분의 박사이상의 학위소지자들은 30-50종 미만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 2-5 연구착수단계에서의 참고정보원

연구자들이 연구착수단계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정보원은 도서나 학술잡지의 참고문헌(24.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색인이나 초록과 같은 2차 자료(18.1%),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검색(14.9%) 순으로 나타났다<표 6>.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자신이 직접 문헌을 탐색하여 연구를 끌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봉선화(1992)의 대학교수 정보이용행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2-6 외부정보원

외부자료는 타대학 도서관(19.1%), 국내 연구기관 전문도서관(16.7%), 그리고 학술회(12.8%) 순으로 얻는다고 나타났다<표 7>.

#### 2-7 최근의 연구추세나 동향파악

전공분야의 최근 연구추세 및 동향 파악의 방법은 학술지의 최근호를 읽는 것(73.6%)을 통해서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었다. 최종학위별로 보면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대부분이 학술지를 통해 파악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석사학위자는 54.5%가 학술지를 통해서였고, 45.5%가 전문분야의 학술모임의 참석을 통해서 최근 연구추세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연구주제와 동향파악방법

		학술지	학술모임	동료와 대화	전체	유의도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53 : 73.6	18 : 25.0	1 : 1.4	72 : 100.0	
학 위 별	석사	12 : 54.5	10 : 45.5	- : -	53 : 73.6	df=4 X <sup>2</sup> =10.29 p <.05
	박사과정	27 : 81.8	6 : 18.2	- : -	18 : 25.0	
	박사이상	14 : 82.4	2 : 11.8	1 : 5.9	1 : 1.4	

〈표 9〉 문헌탐색의 도움여부와 도움자

		있다						없다	전체
		도서관 사서	정보기관 담당자	동료 연구자	대학원 생	기타	전체		
		N : %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11 : 15.3	25 : 34.7	18 : 25.0	4 : 5.6	2 : 2.8	60 : 83.3	12 : 16.7	72 : 100.0
경 력 별	1-5년 이하	5 : 21.7	9 : 39.1	3 : 13.0	1 : 4.3	-	18 : 78.3	5 : 21.7	23 : 100.0
	6-10년 이하	2 : 20.0	2 : 20.0	2 : 20.0	1 : 10.0	1 : 10.0	8 : 80.0	2 : 20.0	10 : 100.0
	11-15년 이하	1 : 6.7	7 : 46.7	6 : 40.0	-	-	14 : 93.3	1 : 6.7	15 : 100.0
	16년 이상	3 : 12.5	7 : 29.2	7 : 29.2	2 : 8.3	1 : 4.2	20 : 83.3	4 : 16.7	24 : 100.0
유의도		df=12 X <sup>2</sup> =10.46 p=0.58				df=3 X <sup>2</sup> =1.59 p>.05			
학 위 별	석사	4 : 18.2	8 : 36.4	6 : 27.3	1 : 4.5	-	19 : 86.4	3 : 13.6	22 : 100.0
	박사과정, 수	5 : 15.2	9 : 27.3	8 : 24.2	3 : 9.1	2 : 6.1	27 : 81.8	6 : 18.2	33 : 100.0
	박사 이상	2 : 11.8	8 : 47.1	4 : 23.5	-	-	14 : 82.4	3 : 17.6	17 : 100.0
유의도		df=8 X <sup>2</sup> =5.71 p=0.68				df=2 X <sup>2</sup> =0.21 p>.05			
직 위 별	전임강사	4 : 18.2	9 : 40.9	3 : 13.6	-	1 : 4.5	17 : 77.3	5 : 22.7	22 : 100.0
	조교수	3 : 20.0	5 : 33.3	2 : 13.3	3 : 20.0	-	13 : 86.7	2 : 13.3	15 : 100.0
	부교수	2 : 9.5	5 : 23.8	11 : 52.4	-	-	18 : 85.7	3 : 14.3	21 : 100.0
	교수	2 : 14.3	6 : 42.9	2 : 14.3	1 : 7.1	1 : 7.1	12 : 85.7	2 : 14.3	14 : 100.0
유의도		df=12 X <sup>2</sup> =20.73 p=0.05				df=3 X <sup>2</sup> =0.84 p>.05			

2-8 문헌탐색의 도움여부와 도움자

문헌탐색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3%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0명 중에 25명이 정보기관 담당자, 18명이 동료연구자, 11명이 도서관 사서

에게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헌탐색시 도움자의 경우 직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2-9 외국어자료의 사용

연구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외국자료의 의존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자료와 국외자료

〈표 10〉 외국어자료 이용비율

		10/90	20/80	30/70	40/60	50/50	60/40	70/30	80/20	90/10	100/0	전체	유의도	
수(명)	N	2	8	11	12	12	8	13	4	2	-	72		
백분율(%)	%	2.8	11.1	15.3	16.7	16.7	11.1	18.1	5.6	2.8	-	100		
경력 별	1-5년 이하	N	1	3	4	4	1	3	4	2	1	-	23	df=24 X <sup>2</sup> =22.39 p>.05
		%	4.3	13.0	17.4	17.4	4.3	13.0	17.4	8.7	4.3	-	100	
	6-10년 이하	N	-	2	2	1	3	1	1	-	-	-	10	
		%	-	20.0	20.0	10.0	30.0	10.0	10.0	-	-	-	100	
	11-15년이하	N	1	3	-	3	1	2	5	-	-	-	15	
		%	6.7	20.0	-	20.0	6.7	13.3	33.3	-	-	-	100	
	16년 이상	N	-	-	5	4	7	2	3	2	1	-	24	
		%	-	-	20.8	16.7	29.2	8.3	12.5	8.3	4.2	-	100	
학 위 별	석사	N	-	6	4	6	2	-	3	1	-	-	22	df=16 X <sup>2</sup> =20.99 p>.05
		%	-	27.3	18.2	27.3	9.1	-	13.6	4.5	-	-	100	
	박사과정, 수료	N	1	2	6	4	6	6	6	1	1	-	33	
		%	3.0	6.1	18.2	12.1	18.2	18.2	18.2	3.0	3.0	-	100	
	박사 이상	N	1	-	1	2	4	2	4	2	1	-	17	
		%	5.9	-	5.9	11.8	23.5	11.8	23.5	11.8	5.9	-	100	

〈표 11〉 국내 학술모임의 참석 정도

	항상 참석	자주 참석	가끔 참석	전체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8 : 11.1	40 : 55.6	24 : 33.3	72 : 100.0

사용정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51.7 대 48.3의 비율로 국내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이는 거의 비슷한 비율이기는 하나 한국어 자료의 의존도가 외국어 자료 의존도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어 자료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타학문영역의 교수들과 다른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봉선화, 1992).

### 3. 학술활동

#### 3-1 국내 학술모임의 참석

전공과 관련되는 학회나 세미나 등의 국내외 전문적 학술모임의 참석정도를 살펴본 결과 자주 참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5.6%로 가장 많았고 가끔 참석한다는 사람이 33.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술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응답자들이 학술모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1>.

#### 3-2 학술모임 참석시 정보입수원

학술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정보입수원으로 54.2%가 발표장에서 배포된 유인물에서 정보를 얻게 된다고 응답하였고, 34.7%가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정보를 얻게 된다고 응답하였다<표 12>.

### 4. 인터넷 이용

전체 응답자 72명 중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5명이었다. 다음부터 진술되



〈표 12〉 학술모임 참석시의 정보수입원

		발표장에서 배포된 유인물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과정	발표장에서 만난 동료와의 대화	기타	전체	유의도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39 : 54.2	25 : 34.7	6 : 8.3	2 : 2.8	72 : 100.0	
경력 별	1-5년	8 : 34.8	13 : 56.5	2 : 8.7	- : -	23 : 100.0	df=9 X <sup>2</sup> =19.23 p<.05
	6-10년	8 : 80.0	- : -	1 : 10.0	1 : 10.0	10 : 100.0	
	11-15년	8 : 53.3	2 : 20.0	3 : 20.0	1 : 6.7	15 : 100.0	
	16년이상	15 : 62.5	9 : 37.5	- : -	- : -	24 : 100.0	

〈표 13〉 인터넷 사용 기간

		1-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전체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11 : 16.9	10 : 15.4	20 : 30.8	24 : 36.9	65 : 100.0

〈표 14〉 인터넷 사용횟수

		하 루 에 한번이상	2-3일에 한번	1주일에 한번	한 달 에 한번	몇 달 에 한번	전체	유의도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22:30.6	29:40.3	7:9.7	4:5.6	3:4.2	65 : 100.0	
직 위 별	전임강사	11 : 55.0	6 : 30.0	3 : 15.0	- : -	- : -	20 : 100.0	df=12 X <sup>2</sup> =21.08 p<.05
	조교수	6 : 40.0	6 : 40.0	- : -	3 : 20.0	- : -	15 : 100.0	
	부교수	4 : 23.5	9 : 52.9	2 : 11.8	- : -	2 : 11.8	17 : 100.0	
	교수	1 : 7.7	8 : 61.5	2 : 15.4	1 : 7.7	1 : 7.7	13 : 100.0	

는 내용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65명에 대한 인터넷 이용 행태에 관한 사항들이다.

#### 4-1 인터넷 사용 기간

인터넷을 사용해 온 기간은 2년 이상이 36.9%, 1-2년 미만이 30.8%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 중 67.7%가 1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3>. 이는 기관 교육망을 통해 인터넷접속의 기회를 제공한 기간과 그 시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 4-2 인터넷 사용횟수

인터넷의 사용횟수를 알아본 결과 하루에 한번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0.6%였고, 2-3일에 한번 사용한다는 사람이 40.3%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주요 정보 제공원으로서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남미 등(1997)의 연구에서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1주일에 3-4시간이 41.4%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직위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횟수의 차이가 유의하였는데(X<sup>2</sup>=21.08, p<0.05), 직위가 낮을수록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 4-3 인터넷 1회 접속시 사용시간

**〈표 15〉 인터넷 1회 접속시 사용기간**

	30분 미만	30분-1시간미만	1-2시간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전체
	N : %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7 : 10.8	25 : 38.5	26 : 40.0	6 : 9.2	1 : 1.5	65 : 100.0

**〈표 16〉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뉴스그룹 읽기	전자우편	특수한 정보검색	일반적인 정보검색	전체	유의도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3 : 4.6	21 : 32.3	21 : 32.3	20 : 27.8	65 : 100.0	
학	석사	- : -	3 : 15.8	4 : 21.1	12 : 63.2	19 : 100.0	df=6
위	박사과정	2 : 6.7	11 : 36.7	11 : 36.7	6 : 20.0	30 : 100.0	$X^2=14.07$
별	박사 이상	1 : 6.3	7 : 43.8	6 : 37.5	2 : 12.5	16 : 100.0	p<.05

인터넷 1회 접속시 사용시간에 대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인터넷을 1회 접속하였을 때 1-2시간 정도 사용하는 사람이 40%였고, 30분-1시간 정도로 사용하는 응답자는 38.5%였다. 그리고 30분 미만으로 잠깐 사용하는 사람은 10.8%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인터넷 사용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4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기능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전자우편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정보검색을 하는 경우가 각각 32.3%, 그리고 일반적인 정보검색을 하는 경우가 27.8%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에서 뉴스를 읽는 비율은 다른 기능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표 16>.

응답자 중 63.2%가 정보검색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유재환(1996)과 박헌천(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김혜양(1996)의 연구에서도 직위는 교수직이 전공분야는 임상분야보다 기초학분야에 있는 의사

들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얻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 혹은 교육부문에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학위별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기능의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X^2=14.07$ ,  $p<.05$ ), 석사학위 소지자들의 63.2%가 일반적인 정보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고, 박사학위 이상은 전자우편, 특수 정보검색 순으로 인터넷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주제분야의 특정 목적을 가진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5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

인터넷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보검색이 73.8%로 가장 많았고, 21.5%가 임상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표 17>. 연구자들에게는 MEDLINE과 같은 정보검색 이용도가 매우 높다

**〈표 17〉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

	정보검색	임상정보	전문잡지 및 원문	SDI서비스	전체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48 : 73.8	14 : 21.5	2 : 3.1	1 : 1.5	65 : 100.0

**<표 18> 인터넷이 주는 효과**

	최신 정보	정확한 정보	다량의 정보	원문제공	기타	전체
	자료 획득					
	N : %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34 : 52.3	1 : 1.5	24 : 36.9	3 : 4.6	3 : 4.6	65 : 100.0

**<표 19> 인터넷 이용에 대한 만족정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N : %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2 : 3.1	18 : 27.7	27 : 41.5	15 : 23.1	3 : 4.6	65 : 100.0

는 사실에서 볼 때 보다 최신성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6 인터넷이 주는 효과**

인터넷이 주는 가장 큰 효과에 대해 52.3%의 응답자가 최신 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인터넷상의 실시간 자료제공의 최신성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량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효과로 나타났다<표 18>. 이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들이 다량의 최신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보다 전문적으로 세분하여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4-7 인터넷 이용에 대한 만족정도**

인터넷 이용에 대한 만족정도의 결과, 인터넷 이용에 만족하다는 응답이 30.8%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41.5%,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27.7%로 나타났다<표 19>.

**4-8 인터넷 이용시 문제점**

인터넷 이용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53.8%의 응답자가 검색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27.7%가 검색방법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표 20>. 이는 속도가 느린 시스템상의 문제와 인터넷 이용방법이 어렵다는 것, 정보의 체계성 결여로 효과적인 정보접근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한 김선주(1996)의 연구결과와 강남미 등(1997)의 정보서비스요구분석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국가적으로 지원될 기간산업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더불어 이 문제는 점차 해결되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검색방법이 어렵다는 대답이 두 번째 문제점으로 나타나 인터넷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에서부터 보다 효과적인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해 볼 수 있겠고, 책임지고 교육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기관도 필요하리라 본다.

지금까지 보건분야 연구 정보환경은 주로 개인 수준에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통신망의 발전과 데이터베이스의 접근도가 향상되면서 그룹, 기관내, 기관간의 연구환경이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분야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

**<표 20> 인터넷 이용시 문제점**

	검색방법이 어렵다	검색속도가 느리다	비용부담이 크다	기타	전체
	N : %	N : %	N : %	N : %	N : %
수(명) : 백분율(%)	18 : 27.7	35 : 53.8	2 : 3.1	10 : 15.4	65 : 100.0

하기 위해 대학에서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의 지식기반을 구축하는데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지식기반에 기여할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컴퓨터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대학행정은 연구를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보다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간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망구축에 보다 많은 투자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보건분야 연구자들이 연구 및 학술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현실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특성이 정보이용행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이용자요구에 맞는 보건분야 정보시스템 설계의 기초자료와 원활한 정보유통, 이용자의 정보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학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망으로 인터넷 이용에 있어 기회가 비교적 많이 열린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 6개교와 3년제 대학 10개교 응급구조과 및 간호학 교수 총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9년 8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연령층은 40대가 5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구경력이 16년 이상인 사람이 33.3%였으며, 최종학위는 박사과정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이 45.8%, 직위는

전임강사가 30.6%로 가장 많았다.

2. 정보이용 측면에서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은 5건 이내가 53명(79.1%)으로 가장 많았고, 학위가 높을수록 연구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59$   $p<.05$ ).

· 평소 많이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으로 인쇄자료는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도서순으로, 비인쇄자료는 외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오디오/비디오 자료, CD-ROM 순으로, 기타 정보로는 학술회의, 외부 동일전공 동료, 외부전문가, 내부동료 순이었다.

·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의 최신성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2-5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를 이용하였고(51명, 70.8%), 연구에 참고하는 자료의 수는 과제당 30-50종 미만이 30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위가 높을수록 참고하는 자료의 수가 많았다( $\chi^2=12.60$   $p<.05$ ).

· 전공분야의 최근 연구추세 및 동향 파악의 방법은 학술지의 최근호를 읽는 것(73.6%)을 통해서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었고, 최종학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10.29$ ,  $p<.05$ ).

· 문헌탐색시 대부분의 응답자(83.3%)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헌탐색시 도움자의 경우 직위별로 차이가 있었다( $\chi^2=20.73$   $p=0.05$ ). 외국어자료의 사용은 국내자료(51.7%)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술활동 측면에서 국내 학술모임에 자주 참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5.6%로 가장 많았고, 학술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응답자들이 학술모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인터넷 이용 측면에서는 전체 응답자 72명 중 65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고, 65명의 응답자 중 67.7%가 1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의 사용횟수는 하루에 한번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0.6%, 2-3일에 한번 사용한다는 사람이 40.3%였으며, 직위가 낮을수록 더욱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1.08$ ,  $p<0.05$ ).

## 참고문헌

· 인터넷 1회 접속시 사용시간은 1-2시간 정도 사용하는 사람이 40%였고, 30분-1시간 정도로 사용하는 응답자는 38.5%였다.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정보검색(63.2%)과 전자우편(32.3%) 사용이었고, 최종학위별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기능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X^2=14.07$ ,  $p<.05$ ). 인터넷이 주는 효과에 대해 52.3%의 응답자가 최신 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인터넷 이용에 대한 만족정도의 결과, 인터넷 이용에 만족하다는 응답자가 30.8%였고, 불만족하다는 응답자가 27.7%로 나타났다. 41.5%의 사람들이 만족정도를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 인터넷 이용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53.8%의 응답자가 검색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27.7%가 검색방법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건분야 연구자들의 정보활동은 연구나 교육 등의 정보요구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정보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등장한 인터넷의 효율적인 활용은 보건의료계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와 신기술의 발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이용자들의 보다 원활한 정보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건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관련 정보제공기관의 봉사형태도 여기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2. 제언

1. 보건분야 연구자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어 이들의 전반적인 정보이용행태를 조사분석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2. 보건분야와 타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비교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1. 강남미, 현대석, 탁계래 : 한국여성의 건강 및 영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PC통신에 의한 정보서비스 요구분석, 여성건강학회지 4(3):365-374, 1997.
2. 김미선 : 보건분야의 정보검색, 제3차 보건연구정보센터 Workshop, 41-48, 1998.
3. 김혜양 : 인터넷활용이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대학병원 의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4. 박현천 : 인터넷에서 단계별 접근방식에 의한 정보검색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5. 박현애 : 간호연구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 1996년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 간호교육, 연구 및 실무의 정보기술 운용, 1-23, 1996.
6. 박현애, 조인숙, 김정은 : 간호와 인터넷, 현문사, 1998.
7. 봉선화 : 대학교수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교육학과 기계공학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8. 사공철 등 편 :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96.
9. 유재환 : 과학기술자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0. 조선일보 월간조선 : 한국인의 2000년 백과사전 한국인의 일생, 조광출판인쇄주식회사.
11. 조인숙 : 인터넷을 활용한 간호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서울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97.
12. 최교환, 박현석, 장동표, 김준식, 김강호, 이용희, 김선일 : 인터넷을 이용한 의학연구, 대한의료정보학회 제 10차 춘계학술대회, 284-288, 1996
13. 최은주 :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이용행

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4):13-38, 1996.

14. Curtis, KL :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 Survey of Health Sciences Faculty Use o Indexes and Databases, Bulletin of th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1:383-39 1993.
15. Yamamoto K, Makino J, Sasagawa N Nagira M : *An Integrated Multimedia Medical Information Network System*, MedInfo '98 9th World Congress on Medic Informatics, 193-196, 1998.

- Abstract -

## **The study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by health fields researchers**

Kim, Mi-Seon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wangju  
Health College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and analyzing overall information use behavior of the health fields researchers. Questionnaires were 116 researchers in there nursing

university or college and EMT college. Four areas were tested on the basis of the purpose that there would exist unique characteristics i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health fields research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s that health fields researchers prefer monographs and journals; they tend to use current materials; the first information source for their research activities is the cited references in the book or journal article; they are likely to delegate literature searching to the librarian, but they tend to conduct direct searching in online setting; in general, they react positively for the rapid change in information environment caused by recen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emphasized that to design an efficient information system and provide an effective information service in the health science related library or information center,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s of health fields researchers in terms of their information use behavior.